

環境問題의 現住所*

李尙圭**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들어 그에 관한 깊은 研究成果를 발표한다거나 環境政策의 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일반에 관해서 평소에 느끼던 것을 요약하여 소개함으로써 環境問題의 處理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문제의 現狀을 摘示해 보고자 한다.

첫째, 環境問題의 深刻性에 대한 認識은 이제 국가나 이념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 속할 만큼 普遍化되어 있다. 1972년에 있는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종 處方이 考案되고 立法化되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國際的인 協力體系가 加速化되었다. 1992년의 <환경과 보전을 위한 리우선언>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은 환경보전을 위한 基本的인 處方이라고 할 수 있고,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環境保全立法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도 환경에 관한 많은 多者間 協約이 이루어졌다.

셋째, 유엔을 비롯하여 각국에서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機構가 마련되었고,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각종 NGO가 雨後竹筍格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넷째, 환경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처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解決의 氣味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惡化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유엔 氣候變化協約(CCC) 제11차 當事國會議에 제출된 EU의 報告書가 각종 環境保全處方에도 불구하고 地球溫暖化現象은 오히려 惡化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들은 環境問題의 現住所를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들이다. 그런데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環境改善은 물론 環境保全이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문제가 深刻性을 더해 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病을

* 한국환경법학회 제82회 학술대회(한국의국어대학교 개최)에서 발표된 기조 말씀입니다.

** 한국환경법학회 명예회장, 변호사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病을 제대로 안 다음, 病의 原因을 파악하여 그 原因을 除去할 수 있는 處方을 마련하고, 그 처방에 따른 藥을 실제로 服用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環境문제의 처방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原因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當面하게 된 環境問題는 經濟的 繁榮을 도모하기 위한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開發行爲와 豐饒를 謳歌하는 現代의 生活方式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環境문제는 根源的으로 人間의 本性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人間은 누구나 幸福을 추구하고, 남보다 잘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人間이 추구하는 幸福하고 잘 산다는 基準을 주로 物質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繁榮이라는 이름으로 代辦되는 物質的 豐饒와 簡便한 生活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그의 母胎인 自然을 마구 破壞하여 왔고, 自然은 征服될 수 있는 것으로 誤認함으로써 삶의 터전인 自然에 대한 인간의 依存性을 忘却한 지 오래이다. 그 결과로 빚어진 環境破壞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人間을 비롯한 生物의 存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環境관계 학자나 環境운동가는 물론, 정부의 關係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環境保全을 위한 處方을 서둘러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는 環境保全運動을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反問할 것이다. 문제는 그 많은 環境立法과 國際的인 協約 및 環境運動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처방들이 별로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國지적 및 지구적 차원의 環境문제는 惡化一路에 있다는 것이다. 그 原因은 과연 무엇일까?

環境보전 내지 개선을 위한 처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주된 原因은 바로 環境破壞行爲의 原因과 軌道를 같이 한다. 즉, 끝을 알 수 없는 人間의 慾望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地球的 氣候變化의 主犯인 온실가스, 즉 주로 二酸化炭素를 예로 들어보자.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EU 및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75%에 육박하고, 그 가운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40%에 이른다. 그런데 미국, EU 및 러시아는 地球上에서 가장 豐饒로운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慾望을 충족하기 위해서 環境破壞에 많이 寄與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繁榮과 豐饒를 추구하는 인간의 慾望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環境破壞는 끝을 알 수 없는 慾望을 추구하는 人間의 本性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慾望을 抑制 調伏하지 않고는 環境보전과 개선을 위한 處方은 實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豐饒를 향한 慾望이 調伏되지 않는 한, 자기의 몫은 버려두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만 쓴 藥을 마시라는 格이 되고 만다. 그 좋은 예는 국제적으로는 바로 작년에 미국이 京都議定書에서 公式脫退한 것을 들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새만금 干拓事業을 관철시키기 위한 地域民들의 集團行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러한 경향은 環境保全處方의 執行과 관련하여 到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의 經濟的 慾求를 그대로 둔 채 시행되는 環境保全處方은 그 實效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持續可能的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開發觀念을 提示한 것은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迂廻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環境問題는 人間을 비롯한 生物의 存續을 위한 根本的인 일이다. 地球라는 조그마한 行星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萬物은 相互 依存關係 속에서 그 存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人間을 포함한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存在하고 意義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環境問題는 이러한 圖式과 人間의 끝없는 慾望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보다 근본적으로 接近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같이 볼 때, 環境破壞는 人間의 認識不足과 無知에서 유래된 것임을 전제로 環境教育의 중요성을 일깨운 <스톡홀름 宣言>의 原則 19라거나, 物質的 成長만을 추구하는 思考에서 벗어나 精神生活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람의 質을 높이는 成長 概念과 마음가짐을 定着시킬 수 있도록 하는 環境教育의 중요성을 強調한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한 國家宣言> 제12항과 제13항은 매우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무리 좋은 法도 효과적인 執行이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 및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物質的 開發행위에서 비롯된 環境問題를 주로 物質的 次元에서의 處方에 중점이 주어지고, 그 開發行爲를 빚어낸 本源的 側面을 소홀히 한 데에서 原因의 하나를 엿볼 수 있다.

하나 뿐인 地球(only Earth)를 지키고, 지구에서의 인간을 비롯한 生物의 생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자의 경제적 慾望을 節制할 수 있도록 效果的이고 持續的인 教育을 시행하는 한편, 環境관계법의 妥協 없는 執行을 도모함으로써 經濟的 打算이 빠른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有益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捷勁이라고 하겠다.